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호 【루계 제2333호】 주체100 (2011)년 1월 16일 (일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실현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박도춘동지, 태종수동지,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주규창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리만건동지를 비롯한 도와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어버이장군님께 전체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새해의 인사를 올리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는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충성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공장의 로동계급은 새해 정초부터 생산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일군들과 인사를 나누신 다음 가공직장, 조립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기술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가공, 조립, 검사에 이르는 생산의 전반공정들을 CNC화함으로써 막대한 노력과 설비,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은 종전에 비해 몇배로 끌어올리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공장안은 궁전같이, 공장밖은 공원같이 꾸림으로써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하나의 과학연구기관을 방불케 하는 정결한 작업장마다에 준비하게 늘어난 CNC화된 기계들과 여러가지 제품들을 보시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훌륭히 실현하여 유리제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차게 벌려온 공장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CNC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어 불과 몇해 사이에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공장으로 전변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CNC화의 표본공장이 또 하나 늘어난데 대해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간직한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CNC화의 요구에 맞게 생산체계를 개조함으로써 우리 식 CNC화의 우월성을 실천으로 증명한 선구자들과 하시면서 그들의 자랑스런 위훈을 다시금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화가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실현된 결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

면서 기술개조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여 생산공정의 과학화, 정밀화, 고속화를 보장하였으며 최첨단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있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해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과학기술고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이야말로 무한한 물질적부부를 낳게 하는 원천이며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불패의 강국으로,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근본열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찬란한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분초를 다투며 증산의 불꽃을 날리는 처녀선반공 박영희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을 친히 만나시여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며 그들의 노력투쟁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8월3일인민소비품들을 보시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의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을 쓰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위부대답게 투쟁의 앞장에 섰뿐 아니라 문화정서생활에서도 모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관유리공장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CNC화를 훌륭히 실현한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과학기술고지를 향해 계속 줄기차게 돌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기간에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제품들의 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전변시키는 근본열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찬란한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분초를 다투며 증산의 불꽃을 날리는 처녀선반공 박영희동무를 비롯한 로동자들을 친히 만나시여 사업과 생활을 료해하시며 그들의 노력투쟁을 따듯이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8월3일인민소비품들을 보시고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의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을 쓰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문화회관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우리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위부대답게 투쟁의 앞장에 섰뿐 아니라 문화정서생활에서도 모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관유리공장은 강성대국건설위업실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관리운영과 생산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CNC화를 훌륭히 실현한 성과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과학기술고지를 향해 계속 줄기차게 돌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가까운 기간에 점령해야 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새로운 제품들의 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CNC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대관유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김정일동지께서는 질 좋은 여러 가지 유리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화가 실현될수록 생산자들의 높은 기술기능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공장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리며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지도 일군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에 맞게 생산과 기술발전, 후방사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실리있게 진행한 결과 최근년간에 자랑할만 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드는 것은 대고조진군을 다그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를

마지신 후 문화회관에서 공장 기동예술선봉대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기동예술선봉대원들이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으로 생산자들을 투쟁과 위훈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정열적인 예술선동활동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당의 경제정책판례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관유리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눈보라 세차게 휘몰아치는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한없는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신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을 누르지 못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영예로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에서 열어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의 중대교양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수록한 DVD의 리용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텔레비전화면을 주의깊이 보아주시며 일군들에게 화면이 깨끗하고 특유의 질도 아주 좋다고, 중대들에 회고록을 수록한 DVD들을 내려보내주기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승연한 격정으로 젖어들게 하였다. 회고록을 DVD에 수록하여 군인들의 사상교양사업에 리용하면 그들이 집체적으로 모여앉아 동시에 회고록을 학습할수 있고 그 내용을 인식하는데도 실효가 크다는것을 깊이 헤아려보시고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군인들의 사상교양

사업을 위해 기울이시는 심혈과 로고가 큰데 대하여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나는 절대로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최고사령관이 전사들에게 줄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그들에게 사상정신적양식을 안겨주는것이라고, 나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그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것들을 다 해결해주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대소한의 이 계절에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은 경애하는 장군님께로만 붙잡혀 있다. 이 엄동설한에 우리 장군님께서 그 어느 단위를 또 현지지도하고계실까. 인민의 그리움이 그대로 대하가 되어 굽어치는 이 땅의 뜨거운 슬결을 절감할수 몇해전 1월에 3월5일청년광산에 새겨진 위대한 아버지의 거룩한 자욱이 승연히 어려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민위천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나의 좌우명이며 나의 정치철학입니다.》

주제 97 (2008)년 1월 하순,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추위를 헤치시고 저 멀리 자장도의 강계시와 장강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는 소식이 편이 전해졌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또다시 북방의 자장망, 3월5일 청년광산을 찾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3월5일 청년광산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크나큰 걱정에 넘쳐 삼가 인사를 올리는 평안일군들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신 강추위를 헤치시고 자장도를 찾으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내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다. 그러시고는

등 곳곳을 돌아보시며 당과 수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온 평안의 로동계급의 충실성과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파분한 치하에 몸들바를 물라하는 평안일군들을 경건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안일군들이 내가 며칠전에 자장도를 현지

수도 평양으로부터 수천리 눈길을 되돌아가시어 사랑의 전설을 엮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정령 그 길이 제일로 사랑하시는 인민을 위한 길이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이기여 우리 장군님께서 수천리 눈보라강도 거꺼이 헤치시며 고결한 헌신과 사랑의 자욱을 아로새기신것이다. 그날 평안사람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뜨거운 사랑의 자욱을 남기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수천리 눈길을 되돌아가신 사연

평안에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정말 멋있게 잘 지었다. 온 나라의 일을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이 먼곳에까지 모신단 말인가. 그도그렇것이 평안은 강계로 부터 수백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것이다. 예로부터 이 고장은 누구나 쉬이 가볼수 없는 곳,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불리우던 곳이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드높은 헌신의 불길로 달래고달래며 날과 날을 이어가던 그들의 그 열망, 그 소원이 꿈같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냐 그 누가 알았겠는가.

평안에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정말 멋있게 잘 지었다. 온 나라의 일을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이 먼곳에까지 모신단 말인가. 그도그렇것이 평안은 강계로 부터 수백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것이다. 예로부터 이 고장은 누구나 쉬이 가볼수 없는 곳,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불리우던 곳이다. 사무치는 그리움을 드높은 헌신의 불길로 달래고달래며 날과 날을 이어가던 그들의 그 열망, 그 소원이 꿈같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냐 그 누가 알았겠는가.

지도하고 돌아갔다기 괴로움을 사시오 없이 강추위가 계속되는 수천리길을 되돌아와 평안을 찾아준데 대하여 몹시 감격해하는데 나는 일을 많이 할수 있다고 파분히 치하하시였다. 엄동설한의 계절에 수천리에 달하는 험준평원과 눈덮인 험한 길을 줄곧 헤쳐오신 자신의 로고는 생각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부러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안의 연쇄개성이며 재물장 그리고 파쇄장들과 선광장

지도를 돌아갔다기 괴로움을 사시오 없이 강추위가 계속되는 수천리길을 되돌아와 평안을 찾아준데 대하여 몹시 감격해하는데 나는 일을 많이 할수 있다고 파분히 치하하시였다. 엄동설한의 계절에 수천리에 달하는 험준평원과 눈덮인 험한 길을 줄곧 헤쳐오신 자신의 로고는 생각지 않으시고 그들의 수고부러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러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안의 연쇄개성이며 재물장 그리고 파쇄장들과 선광장

본사기자 김 인 선

우리 수령님의 후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일본새

올해공동사설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라는 좌우명을 안고 우리 수령님처럼 의미 원대하고 리상이 높게, 수령님처럼 배심이 세고 락관에 넘쳐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백년이고 천년이고 대대손손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야 하며 모든 사업을 수령님식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이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전사들만이 지닐수 있는 호칭이다. 그것은 사상의 전봉, 투쟁기풍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수령과 전사의 관계를 표현한 가장 고귀한 부름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아버지이시거나 혁명가들이 어떻게 살아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승화한 귀감으로 보여주시는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동시그럼 그 어느 위인전에서도 우리 수령님처럼 원대한 뜻과 숭고한 리상을 지니고 담대한 배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을 승리로 이끈 정치지도자를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여주신 혁명가적품모양 말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은 우리 인민이 대대손손 계승해나가야 할 김일성동지의 귀중한 재부이다.

우리는 수령님의 후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일본새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거어 해내야하는 불굴의 기질이다. 우리는 계급주의반동들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에서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있다. 보통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것으로 인정되고있다. 그러나 우리 조국땅에서 창조된 현실은 우리의 결심이 결코 주관적인 유망으로부터 출발한것이 아니라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남들은 재부나 돈의 힘을 믿지만 우리는 정진력을 믿는다. 인간의 사상정신력은 위대한 기적의 원천이다. 우리는 계급도간섭지 건설자들과 최전방전선 건설자들의 영웅적위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대계도간섭지 건설자들은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박차고 용근 한계군의 정지면적에 맞먹는 부침땀을 얻어냈으며 최전의 군인건설자들은 몇십년이 걸려야 한다는 최첨발전소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영웅적투쟁을 벌여 이제는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남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기적을 벌이여 창조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 불리

우리는 수령님의 후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일본새는 다음으로 모든 일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해놓는것이다. 3월5일청년광산은 백만점짜리 리상촌으로 소문난 자자하다. 평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면적인 기술개선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평안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고 아버지수령님의 넘내대로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로 전전시켰다. 뿐만아니라 현대적인 문화주택을 일떠세우고 공공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을 그존하게 갖추어 놓아 평안을 인민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으로 훌륭히 꾸려놓았다. 이들이 해놓은것은 어느것을 보아도 완전무결한 수준의것이면서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창조물들이다. 오늘날의 대고조진군에서는 이런 일 자체가 요구된다.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렇듯 빛나는 《우리의 후손이 창조해야 할 혁명적일본새!》는 신념의 구조가 맥박질 때 만점짜리 창조물이 일떠서게 된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이 크든 작든 후대들을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업기풍과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답게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할것이다.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이 전투적구호가 어찌하여 날이 갈수록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을 더욱 세차게 울려주며 온 나라에 비약의 열풍, 총공공의 열풍을 안아오는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구조에 인민 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풀어 아버지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가 발휘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그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를 높이 존경하며 따르고있습니다.》

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공장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투쟁은 그대로 이 땅에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최후의 시대를 펼쳐놓을수 있게 하는 무한한 힘의 원천이다. 사상이 크면 클수록 일을 더 잘하여 보다 큰 사업성으로 보답하는것이 우리 전사들의 마땅한 것이이다. 올해공동사설을 피뎌는 심장에 받아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서서 작파를 불러와 성파를 이룩하고있는 선군조선의 격동적인 현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에 하루빨리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이거나 그 신념, 그 의지가 어떤것인가를 력사는 다시금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수령결사옹위의 승교한 모범으로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당원들과 농장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쏟고있다.

리 당 위원회에서는 배두산녀장군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당세포,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포전에 간간 리당의 한 일군은 작업의 설함을 리용하여 항일의 나날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신념을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신데 대하여 농장원들에게 감동깊이 해설해주었다. 로동동원원 방 대 삼

김 은 주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을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쳐갈 신심에 넘쳐

온 나라 체육인들의 심장이 세차게 울리고 있다. 체육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이 위대한 당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정당한 대고조물결이 활활 타오르는 시대의 벅찬 승결에 발맞추어 이 땅에 체육강국의 포성을 높이 울릴 혁명적열정으로 새해의 진군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체육부앞에 나선 과업은 무겁고도 영예로우며 체육부본 일군들과 체육인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

당위원의 지도밑에 체육성에서는 올해전투의 첫날부터 모든 일군들과 정부원들이 공중사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힘을 넣어 누구나가 그 정신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체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현 실태를 깊이있게 분석검토해 기초하여 올해에

체육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의 사상과 정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축구강국, 체육강국건설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전투작전을 실속있게 벌려나갔다.

특히 종목별체육기술훈련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 부서들에서 체육과학연구부문의 긴밀한 연계밑에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관주의, 경험주의를 철저히 뿌리뽑고 감독, 선수들의 사상적교육을 기초하여 체육기술훈련목표를 혁신적으로 세워 나가도록 하였다.

정부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성책일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이 전체 정부원들의 창조적열정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올해공공사업에서는 우리가 집행해야 할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었다. 지금 우리 부서 정부원들의 가슴속에는 체육분야에서 온 선군조선의 위용을 떨치게 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있는 공공사업의 전투적열정을 기어이 결사

관철할 일념으로 불타고있다. 국장 김정수동무의 말이다. 축구발전에 대한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의 모든 정부원들이 이런 불같은 열의로 심장을 뛰고있다.

축구강국건설에서 맡고있는 자신들의 임무와 사명을 자각할수록 어깨가 그 어느때보다도 무거웠다. 하지만 결사의 위인들께서 체육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빛내고 경에 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혁명적으로 내밀어 국제경기부대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룩된 성과도 크지만 당의 체육정책과 공공사업의 사상과 정신에 기초하여 교훈도 많이 이득이다.

축구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는 문제, 체육단,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의 교수훈련지도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문제, 감독, 지도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 문제, 올해에 진행될 여러 축구경기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는 문제 등 나라의 축구발전에서 꼭 거둬야 할 과제를 거두어오

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 학교 학생들의 충성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결코 틀렸다. 나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높은 김선숙교장도 만나 보았다.

학교에 일어번지는 축구열풍을 격정기리에 담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격정기리가 더 많아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어찌 이들에게만 있다고 하랴.

겨센 축구열풍이 가져온 격정기리! 그것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축구열의를 보여주는 가슴후련한 자랑거리였다.

백성근

올해전투의목표를 심도있게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선군조선은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비약의 열풍을 앞장에서 일으켜갈 드높은 열의로 가슴 불태운 체육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이었다.

선군조선은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올해공공사업에 제시된 주제 체육발전의 웅대한 목표가 체육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략관을 배태로 더해주고있다.

체육부앞에 나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나라의 체육발전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 성일군들과 정부원들부터가 비상한 애국적열의와 강인한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체육성 일군들과 정부원들은 올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그 시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필승의 정신력과 순결한 애국적열정을 총괄시켜 축구강국,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올해의 추진근에서 투쟁의 기수로써의 사명과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축구강국을 향하여

우리가 일떠세우려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은 체육에서도 명실공히 강국으로서의 체모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자면 체육의 상징종목인 축구에서부터 비약의 불결이 활활 타올라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축구는 우리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체육종목입니다. 축구기술이 높으면 나라와 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빛낼수 있습니다.》

축구는 조선사람의 체질에도 맞으며 우리 인민 모두가 좋아하는 체육종목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최고록 《새기와 더불어》에서 황일의 나라 옥돌골에서의 축구경기의 정치적의의는 만점이었고 감회깊이 회고하신바와 같이 축구는 혁명의 년대와 년대를 이어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부강조국건설을 더욱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어왔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제 8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를 뒤흔든 조선축구신화의 파문과 세상이사람들이 《조선의 승리는 조선의 사상, 조선의 사회제도, 조선의 정신의 승리이다.》라고 격정을 터뜨린 제 3차 세계청년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과 같은 민족의 승기를 파시한 국

경계기성과들이 우리 축구발전력사에 금지높이 새겨져있다. 또한 축구강국을 당당히 일떠세울수 있는 위력한 물질기술적토대로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축구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 가슴벅찬 애국사업이다.

어디서나 누구나가 명성높은 축구강국을 향하여 축구열풍을 본때있게 일으켜야 한다.

체육부본 일군들과 축구감독, 선수들이 애국적열정을 총괄시켜 축구기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자랑찬 국제경기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명성높은 축구강국으로 일떠세우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학교체육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축구와 더불어 성장해가는 세대들의 밝은 모습들이 가득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일군들이 앞장에서 서서 광범한 대중속에서 축구열의를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선군조국을 축구의 나라, 축구강국으로 빛내이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모든다 당의 부름에 애국의 한마음 다 바쳐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축구강국건설의 정당한 불결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함경남도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을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만들며 대한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과업을 실재로 새겨오는 함경남도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이 도안의 학생청소년들속에서 체육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공중분화사업과 공중체육활동을 적극 벌려 어디에 가나 흥성거리고 사람들이 혁명적타락관과 신심에 넘쳐 일하고 생활해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 첫 체육의 날을 맞아 함흥청년공원에 꾸러놓은 빙상장에서는 시의 수많은 학생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겨울철체육활간 개막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이 끝난 후 학생청소년들은 빙상장만강행군, 스케트타기, 다채로운 체육유희오락경기들을 진행하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집단의 전투력을 잘 보여주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체육의 날 운영을 의의있게 조직하는것과 함께 시간의 여려움에도 체육발전을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선군조선의 영예를 빛내인 축구감독들과 선수들을 소개하며 세계적인 축구발전속에서,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주요국제, 국내경기대회를 보여주는 소개판들을

만들어놓아 체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북돋아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박영철, 김진현, 한병희동무를 비롯한 도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은 도안의 곳곳에 나가 학생소년들속에서 축구에 대한 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기 위한 해설담화를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 중학교, 소학교들, 시, 군들사이의 축구경기들을 자주 조직하여 그 어디에서나 축구바람, 체육바람이 불게 하고있다.

함흥화학교대학, 함흥수리동대학, 함흥사범대학 등 도안의 학교들에서 축구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다. 함흥군 문화중학교, 정평군 정상중학교, 금야군 한계만중학교, 고원군 덕지강중학교, 북청군 성남소학교를 비롯한 많은 중학교들과 소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축구기초기술을 더 잘 습득시키기 위한 사업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기판,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들에서도 올해에 축구를 비롯한 다채로운 대중체육경기들을 더 잘 조직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 일군들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체육의 날 운영을 의의있게 조직하는것과 함께 시간의 여려움에도 체육발전을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선군조선의 영예를 빛내인 축구감독들과 선수들을 소개하며 세계적인 축구발전속에서,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는 주요국제, 국내경기대회를 보여주는 소개판들을

얼마전 사리원시 구천중학교를 찾았던 나는 이 학교팀과 다른 학교팀과의 축구경기를 보게 되었다. 매 선수들의 몸다구마구 전술조직 등 수준이 이만저만이 아닌 불만 한 경기였다.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흘러가는 속에 구천중학교팀의 공격수가 강한 중앙지키키를 한 공이 그대로 문지기도 어쩔사없이 상대팀 골문 오른쪽모서리로 날아들어갔다. 《잘! 멋있어. 김훈이 잘 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다. 알고보니 현재 구천중학교팀을 활약하는 많은 축구선수들을 키워냈다는 체육교원 민경천동무였다. 그와 이야

기를 나누는 과정에 이 학교 학생들의 충성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결코 틀렸다. 나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 높은 김선숙교장도 만나 보았다.

학교에 일어번지는 축구열풍을 격정기리에 담아 뽐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격정기리가 더 많아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어찌 이들에게만 있다고 하랴.

겨센 축구열풍이 가져온 격정기리! 그것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축구열의를 보여주는 가슴후련한 자랑거리였다.

백성근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받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평양체육단 일군들과 감독, 연구사, 선수, 종업원들의 기세가 대단하다.

주목되는것은 평양체육단에서 체육과학을 중시하고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비약의 열의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체육부본에서는 모든 훈련과정을 과학화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기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년간 평양체육단에서는 당의 체육정책을 높이 받들고 선수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면서 교수훈련을 힘있게 내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체육발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체육부본에서 전국적으로 자랑할만한 한 성과를 많이 이룩하였다.

이 나날에 이윽 일군들이 더욱 절감한것은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문제였다.

세계적으로 체육과학연구성과에 대대하여 종목별체육기술이 비약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현실을 놓고볼 때에도 그렇고 하루빨리 조국의 영예를 누리에 빛내이는 훌륭한 체육강자로 준비할 선수들의 드높은 열의에 비추어볼 때에도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한시도 드릴수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체육단에서는 과학적인 연구사태를 실현하는 인재를 두루 키우는 사업을 확고히 앞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종목별선수들, 의료연구사들이 훈련장

에 틀고앉아 감독들과 협동작전을 긴밀히 벌리면서 교수훈련지도보다 과학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 나날에 감독들속에서도 창조적인 안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을 연구사들과 지체와 정정을 합쳐 풀어나가는 기풍이 체질화되고 있었다.

올해에 체육단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여기에 편만부서 직원들까지 떨쳐나서서 수많은 체육과학연구성과를 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있다.

체육단에서 체육정보기술센터를 잘 꾸리고 그 역활을 충실하게 맡아 체육과학중심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여러 대학중등생 등으로 꾸려진 센터에서 세계체육기술훈련추세와 관련한 정보자료들을 수집이 수집하여 보급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하면서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 투쟁의 열의를 더해주고있다. 특히 센터에서 지난해에 창안제작한 새로운 측정기계가 제 8차 전국체육부본 과학기술혁신경연에서 특출한 평가를 받았으며 훈련지도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체육단에서는 유체훈련의 과학화를 보장할수 있는 새로운 기계들을 제작도입하기 위한 창조적 열풍이 불고있다. 최근에 체육단에서 여러차례 벌인 회의와 토론회, 연구회 여기에는 체육단의 책임일군

들과 감독, 연구사들, 교수훈련과 편만부서 일군들, 체육정보기술센터 성원들뿐만 아니라 평양기계대학 교원들과 사당철일군도 참가하였다.

감독, 연구사들의 발기에 기초하여 평양기계대학 교원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유체훈련기계에 대한 설계안들을 놓고 벌인 진회의회에서는 대 기계들의 과학적과정에 대한 논의와 그 제작을 위한 방도들의 과학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시의 일군들은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유체훈련기계를 성과적으로 만들수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세워주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과학실 연구사들이 해당 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그 곳 노동자들과 함께 기계제작전문을 힘있게 내밀고있고 센터에서는 유체훈련기계의 현대화에 필요한 측정장치를 해결하기 위한 창조적 날과 날을 이어가고있다.

받으면 밤대로 최신체육의학자료들을 탐독하면서 선수들의 유체훈련능력을 개선할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론을 탐구해가는 단장변경동무들이 비롯한 일군들의 선구자적일선배가 대중의 열정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말그대로 평양체육단의 어디에서나 과학중심의 열풍이 일어 번지고있다.

은 집단이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우리 조국을 세상에 명성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자름길이 있다는 확신으로 심장을 세차게 뛰이며 기세드높이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올해공공사업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선군주의 사상하수도사업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있게 부르며 올해 추진공의 발걸음속에 당의 신장의 박동을 맞추어가고있다.

일도 잘하지만 예술소조활동의 본보기로 시적으로 소문이나 자자한 사업에서는 자랑도 많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어디를 가보아도 근로자들이 일하며 생활하는 곳에서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지고있다.》

사업소에서는 예술소조활동을 단속적 종업원들의 예술적소양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매일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고리로 보고 이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시기 이북 종업원들이 여러 계기들에 다채로운 무대들에서 펼친 공연과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벌린 힘있는 경제선동은 사상성서

직강화력이 크고 호소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위훈과 혁신으로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원지능력화공사업에서도, 수원지능력화공사업도 상수도판을 늘리는 공사는 실로 방대하고 이뻐했다. 시적으로 령령을 집중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였으나 일자리는 크게 나지 않았고 맥을 놓고 주저앉는 전투원들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신의주시상하수도사업소의 예술소조원들이 울리는 힘찬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공사장에 울려 퍼졌다.

진수취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예술소조원들이 진행하는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경제선동은 대중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고 공사장에 전투적기상이 나날이 높아져갔다.

힘찬 노래소리와 기백있고 호소성이 강한 선동은 전투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며 위훈과 혁신으로 고무추동하였다.

예술소조원들은 낮에는 공사장에서 전투원들과 함께 일하고 하고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도 넘겨주면서

화선식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다음날 경제선동을 위한 대본을 창작한성하고 형상하면서 날과 날을 이었다.

이북 종업원들은 이렇게 군중예술활동의 위력도 공사를 앞당기 끝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맑은 혁명과업수행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올해에 들어와서도 군중예술활동을 보다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노래와 더불어 일러마다에서 혁명적열정과 광만이 차넘치고 혁신적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고있다.

종합합프장에 새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곳의 불리한 물공급체계를 원만하게 수리정비하여 시인의 주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수 있게 하였다.

엔지니어 필승의 신심과 략관을 넘쳐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추진공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수놓아가는 이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예술을 대중화할때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한번 확증하게 된다.

본사기자 전철호

공구피복재료 - 초경질화탄소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금강석보다 더 단고 연안정성이 높은 초경질화탄소를 개발하여 공구기능을 개선하는데 큰 주목을 돌려주고있다.

초경질화탄소는 자연계에 없는 인공적인 합성재료로서 탄소와 질소원자의 공간배치가 균일하고 비축하여 특이한 물리특성을 나타낸다. 레이저방법으로 합성제조한 초경질화탄소 박막은 결정체안에서 원자사이의 결합에너지가 금강석보다 약간 더 크고 균질을 표시하는 제적탄성률수도 금

강석을 초과하는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또한 금강석은 700°C에서 초경화되어 기계적성질이 떨어지지만 초경질화탄소는 1200°C에서 경화되어도 강도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므로 초경질화탄소를 절삭공구피복에 리용하면 공구의 내마모성을 높이고 수명을 늘일수 있다.

시험자료에 의하면 초경질화탄소의 마찰계수는 금강석과 비슷하며 이것을

피복한 고속도강드릴의 내마모성은 피복하지 않은것보다 10배 높다고 한다.

절삭속도가 세계 걸리는 고속 및 고속가공에 초경질화탄소피복공구를 쓰면 공구수명을 피복하지 않은 고속도강공구의 2.5배, 경질합금공구의 3-10배로 늘일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절삭하기 힘든 굳은 소재에 대하여 값비싼 경질합금이나 텅스텐합금보다 3배 더 값이 낮은 고속도강공구에 초경질화탄소를 피복하여 초경질화탄소와 같은 절삭성을 낼수 있으며 공구리부에서 훨씬 경제적이다.

효능높은 미꾸라지 영양액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다 른 민물고기보다 미꾸라지 관련 영양성분이 많은 미꾸라지에 주목을 돌렸으며 오랜 기간 여러가지 질병치료 등에 널리 써왔다.

미꾸라지 영양액은 만성간염, 간경변증과 그에 나타나는 복수 등의 치료에 좋다. 이것을 마시면 오줌량이 현저히 늘어나 복수가 인차 해소된다.

건강한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마시면 간을 보호한다.

영양액은 당뇨뇨병, 영양실조 등도 예방한다.

윤용학

현실적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현실적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교육의

새로운 건식 린산생산기술

새로운 건식 린산생산기술

새로운 건식 린산생산기술

새로운 건식 린산생산기술

새로운 건식 린산생산기술

새로운 건식 린산생산기술

통일과 분렬의 입장을 가르는 시금석

지금 우리 겨레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가 시작된 올해에는 악화된 북남관계가 어떻게 하나 개선되고 다시는 동족대결의 비극적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고있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로 함께 손잡고나가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올해 공동시절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시절을 적극 추진시켜야 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방도는 대화와 협상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공화국의 제에 호응하여 한시바빠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과 남의 각당, 각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면 민족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찾을수 있을것임이다.》

대화와 협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방도이다.

우리 민족을 뿔로 갈라놓은 미국은 지금도 북남대결격화를 통해 어찌든 이익을 얻으려고 획책하고있다. 우리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로 나아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국은 북남관계문제를 계속 간섭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의 진전을 방해하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의 이러한 간섭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아야 한다. 통일위업실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며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는 힘은 겨레의 단합에 있다.

북과 남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면서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대화와 협상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불신과 오해를 가시고 리해를 깊이 하며 의사와 지향을 합칠 때 우리 민족은 외세의 방해책동을 이겨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수 있다. 대화와 협상은 북과 남이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민족의 주체적임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길이다.

대화와 협상을 회피하면 그것은 기필코 침략적인 외세의 분렬리간책동에 높아나는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조선반도의 분렬을 피하는 외세와의 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오늘 북과 남의 당국은 용담 민족의 편에서 자주적통일의 방도인 대화와 협상의 길을 택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반대하면 외세의 민족분렬정책수행의 하수인으로 전락되게 되며 민족앞에 서 있을수 없는 난역의 지에 된다. 동족을 등지고 외세와 공조하는것을 우리 민족은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

대화와 협상은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매우 엄혹하며 조 선반도정세는 극히 위험하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모두 차단되고 불신과 대결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쌍방사이에 포탄까지 오간 형편이다. 실로 우리 민족성원이라면 누구도

방관시할수 없는 협박한 상황이 북남사이에서 조성되고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위업에 얼마나 엄중한 해독을 끼치고있는가는 더 말할 여지가 없다. 과거에 처한 북남관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에 우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자면 무엇보다 대화와 협상이 시급히 열려야 한다. 대결의 방법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수 없다. 북과 남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지난 3년간의 파도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대화와 협상만이 구도에 달한 불신과 대결의 감정을 해소할수 있으며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어놓을수 있다.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인것만큼 대화와 협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통일문제해결의 당사자는 북과 남이며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도 다투어 북과 남이다.

북과 남의 책임있고 실현있는 당국이 마주앉아 흥분을 더놓고 오해와 불신을 가져야 북남관계가 개선되며 적대분위기를 가시고 협력과 평화의 길을 열수 있다. 북과 남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으로 서로의 의견성을 해소하고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좋은 전례들이 많다. 북남사이에서 과거에 있었던 문제도 대화와 협상의 방도로써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그 어떤 조건과 구실을 핑계로라도 한시바빠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

상대방에게 조건부문을 계속 내대는것은 정 철

은 성실한 대화자세가 아니다. 북남관계가 오늘과 같은 협박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부당한 조건을 내대면 과연 북남관계는 언제 개선될수 있었는가. 대화와 협상을 외면하면 대결과 긴장격화밖에 초래될것이 없다. 북과 남이 서로 대화하고 협상하면서 대결상태를 해소해나갔더라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가 지금처럼 격화되지 않았을것이다. 북남대화가 차단되고 대결이 격화되면 얼마나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는가를 인식할 때가 되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힘으로 해결하는 길도,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길도 오직 대화와 협상에 있다.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가 외면하는가에 따라 민족자주의 립장인가, 외세주종의 립장인가 그리고 북남관계개선의 립장인가, 북남대결의 립장인가 하는것이 갈라지게 된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배국, 통일과 분렬의 립장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해치려는 외세에 높아나려 하지 않고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전제조건없이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

우리는 악화된 북남관계를 해소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대화와 협상에 민족의 출로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더욱 추동함으로써 올해에 이어이 북남관계개선에 조국통일의 전 환적구실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은 정 철

대화에 역행하는 군사협력놀음

지금 해외의 우리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대화와 협상제에 조속히 응해나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여는데 자기의 응당한 역할을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시대와 겨레의 지향에는 등을 돌리고 동족이 아니라 제정을 쫓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공공연히 손을 잡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남조선 10일 남조선장부 장관과 일본방위상은 회담을 벌여놓고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그에 대비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 내용은 남조선과 일본이 군사분야에서 호상 지원하고 정보교류를 실시하며 그를 위한 협정체계를 다그친다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과 일본의 새로운 군사적협력의 계기를 의미한다.

남조선이 수많은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덮어둔 채 그와 군사적협력을 본격화하고있는것은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는 사태이다. 남조선당국이 일본반동들과의 군사적협력에 거리낌없이 나서려는 본질이 있어서 그들에게 제친 길을 열어주는 행위이다. 이것이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해치고 나아가서 지역적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반민족적행위로 전락하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제친 기회만을 노리고있는것은 위대한 전쟁범죄이다. 최근 일본은 군사적협력의 합법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피는이 되어 남조선과 일본이 호상 지원하고 《유사사》 일본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조선반도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할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며 뚜렷한 발로인것이다.

일본이 이전에 남조선과 군부회담을 벌여놓고는 속심이 장차 조선제정체제를 실현하자는데 있다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번 회담에서

울려나온 그 누구의 《도발》이니 뭐니 하는 꾀병은 저들의 음흉한 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구실이다. 일본은 최근 북남사이의 긴장격화를 구실로 남조선당국을 구출해 조선제정의 발판을 닦아보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런데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관념에 사로잡혀있는 남조선당국은 각계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배후조종과 부추김에 일본과의 군사적협력의 계에 서슴없이 나서고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반민족적범죄인가.

남조선과 일본의 이번 군부회담은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의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개선에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남대화가 시급히 열려야 한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선의의 손을 내미는 동족을 외면하고 제친 길을 시류처럼 버리며 우리 민족에게 전쟁의 재난을 들먹거리고 협박하는 일본반동들과는 주저없이 결탁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수많은 죄를 저지른 일본에게는 회담이나 협력이나 하며 추파를 보내면서도 동족과의 대화에는 것처럼 손이 시러 하니 이런것을 놓고 과연 누가 그들에게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생각이 있다고 하겠는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먹이던 남조선당국자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것은 기필코 우리 민족에게 재난을 가져오는 당풍으로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화에 역행하는 외세와의 침략적인 군사공조놀음을 견여치워야 한다. 북남대화의 문은 열려져있다.

조 남 수

의 판도장질에는 그 형태로 여러가지 기하학도형으로 된 것과 2개의 세삼각도형의 세 육각형을 하고 그 사이에 세삼각도형의 중간장질을 넣은 것이 있다. 이번에도 드러난 공판장질 품은 그중 두번째로 세삼각도형의 중간장질을 넣은 것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려유적들에서 나온것들과 형태가 거의 같다.

이처럼 고구려공예를 그대로 이어받음으로써 발해공예품들은 고구려사람들의 웅건하고 선취적인 기상과 감정이 그대로 반영될수 있었건다. 반만년의 오랜 기간의 수난과 풍파는 모질어도 우리 민족은 이처럼 단일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면면히 이어왔다.

발해인민들의 뛰어난 실기와 재능이 깃들여있는 이 금판장질 품은 《해동명국》의 높은 문화발전수준을 보여주는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장 철 만

위험한 군사협정체결책동을 단죄

11일 남조선의 민주노동당이 일본의 신사회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위험천만한 군사협정체결책동을 단죄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군장부 장관과 일본방위상이 10일부러 서울에서 《지역안보강화》의 미명하에 회담을 가지고 군사비밀보호협정과 호상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성명은 지난해 미국과 일본,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동맹정책수행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특히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적협력에 엄중한 단계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재침략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데도 남조선은 폭로당국이다. 성명은 남조선과 일본당국이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협정

체결책동을 단죄할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0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평화에 역행하는 호전파들의 군사적협력강화책동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남조선과 일본이 북반반도정세와 환과 일본 《자위대》에 대한 군수지원 등을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런 군사협정체결책동은 조선 반도 《유사사》 공동주체성행을 넘어서 남조선과

일본사이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을 합법화하려는데 있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조선반도평화에 역행하고 일본의 군주주의악망을 부추기는 군사협정체결책동은 하루빨리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한강 하에서 하나의 고개를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화합하게 살아온 지혜롭고 애국심이 높은 민족입니다.》

고구려의 당당한 계승으로 출현하여 《해동명국》으로 존엄을 떨쳐, 만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뚜렷한 자국을 남긴 발해는 정치, 경제, 군사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된 나라였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발해인민들은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계승하여 민족분열을 활활 꽃피웠다. 그것은 발해시대의 공예유산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민적으로 공예유산은 해당시기 그 민족의 사상정신생활과 성격특징, 생활풍습과 예술적정서 및 취미를 반영한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총결기해나서자

6. 15 공동선언실천 해외동포단체들 성명, 인사들 담화 발표

해의 대화제안을 놓고 《진정성》과 《책임성》을 운운하며 대화와 협력, 평화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것을 여실히 드러내놓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오늘날 대화와 협상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배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성실한 태도로 대화의 길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6. 15 공동선언실천 해외동포단체들 미주지역위원회가 8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성명을 통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비방증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정부》는 그 무슨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양자택일 못한 여론을 내세웠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지금 남조선당국이

대한 진정한 의사가 없다는것을 내외에 보여주고있는 서정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대화와 협상에 대한 태도는 곧 애국과 배국,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북남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좋은 전례가 있고 이 시 제때된 훌륭한 원칙과 선언들이 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대화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담화는 지금 전세계가 공화국의 중대제안을 남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주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마음과 힘을 합쳐 분렬의 비극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을 호소하며 협상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며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 힘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리정만 제일본조선상공권합의(상공권) 상리사회리사장이 세계평화통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제일본조선상공권

민족분렬의 비극을 뼈에 사무치게 안고 살아오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중대한 과제는 없다 하고 협정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것을 주장하였다.

담화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공화국의 중대제안에 대한 민족을 사랑하고 후손대국의 번영을 간절히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담화는 지금 전세계가 공화국의 중대제안을 남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주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마음과 힘을 합쳐 분렬의 비극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을 호소하며 협상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며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 힘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리정만 제일본조선상공권합의(상공권) 상리사회리사장이 세계평화통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제일본조선상공권

합의 인민군들과 동포상공권들이 인민생활고조의를 불길게 더욱 세차게 추종하며 강대국권력에 결성적합을 일으키고자 하는 세력공조수단을 받아안고 심심과 탐욕에 넘쳐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비범하고 탁월한 선군정치가 있기에 어버이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강성대국 건설성업은 반드시 실현되고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으뜸가는 인민으로 자랑됨이 될것이라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를 민족의 비극을 끝장낼 희망의 년대로, 통일과 번영의 년대로 빛내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며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 힘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조선통일은 온 겨레의 최대의 숙원이라고 하면서 담화는 상공권의 전체 인민군들과 동포상공권들이 민족의 화해를 도모하며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총결기해나서자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당국은 선의를 가지고 조선의 제안에 응해나서야 한다

로씨야, 영국, 파키스탄의 정당, 단체들 성명

로씨야와 영국의 정당, 단체가 우리 나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로씨야인민공화국전선은 8일 성명을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모든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가질것을 제의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대결을 막기 위해서는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하루빨리 조선의 북남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구면이 열리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표시한다.

같은 날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는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선성있는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새해에 들어와 조선 정부, 정당, 단체들은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현실적인 제안을 천명하였다. 정부, 정당, 단체들은 이 제안을 통하여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자기들의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선의를 가지고 이처럼 중대한 제안에 조속히 응해나설것을 요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파키스탄인민공화국의 성의있는 중대제안에 호응해나섬으로써 민족앞에 선 책임은 다투어 할것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성명을 통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비방증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정부》는 그 무슨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양자택일 못한 여론을 내세웠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지금 남조선당국이

남조선의 민기회 향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현이 10일 《대화와 협력만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겨레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글은 북이 새해공동사설과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글은 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나아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면적인 북남대화를 주장

남조선의 전보편적 7일 논평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전면적인 대화에 나설것을 현 당국에 요구하였다.

논평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는것은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하면서 전쟁도발책동과 대결정책으로는 파괴적후과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각계는 현 《정부》가 민중을 전쟁공포속에 몰아넣는 행위를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할것을 바라고있다고 논평은 주장하였다.

논평은 지난 5일 같이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진행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를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국이 이와 관련하여 그 무슨 《진정성》을 운운하며 기존정책을 고집하고있다고 논평은 비난하였다.

논평은 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8일 현 당국이 북남대화제안을 즉시 호응해나설것을 주장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은 북이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이어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를 통해 당국자들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것과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 관광개회,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개성에서 가질것을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현 《정부》가 북의 이러한 대화제안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논평은 주장하였다.

논평은 조선반도평화를 위해 당국이 하루빨리 대화에 나설것을 민중은 요구하고있다고 밝혔다.

단절이나 대화, 전쟁이 나 평화나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서 현 당국이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할것이라고 논평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화의 마당에 나설것을 강조

제미주사상연구소가 5일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해 나설것을 요구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서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한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현 《정부》가 북의 이러한 대화제안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논평은 주장하였다.

논평은 새해에 들어와 북 남간에 대화와 관계개선의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는데 대해 환영한다고 지적하였다. 북남이 서로 등을 돌리고있는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논평은 하루빨리 당국사이의 대화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당국이 구실과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의 마당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번영을 위한 길에 나설것을 요구

6. 15 공동선언실천 해외동포단체들 성명, 인사들 담화 발표

해의 대화제안을 놓고 《진정성》과 《책임성》을 운운하며 대화와 협력, 평화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것을 여실히 드러내놓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오늘날 대화와 협상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배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성실한 태도로 대화의 길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6. 15 공동선언실천 해외동포단체들 미주지역위원회가 8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성명을 통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비방증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에 대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에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정부》는 그 무슨 《진정성》을 운운하며 대화제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양자택일 못한 여론을 내세웠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지금 남조선당국이

대한 진정한 의사가 없다는것을 내외에 보여주고있는 서정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대화와 협상에 대한 태도는 곧 애국과 배국,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하였다.

북남사이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좋은 전례가 있고 이 시 제때된 훌륭한 원칙과 선언들이 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이 대화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하면서 담화는 지금 전세계가 공화국의 중대제안을 남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주시하고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마음과 힘을 합쳐 분렬의 비극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들을 호소하며 협상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남조선당국과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하며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 힘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리정만 제일본조선상공권합의(상공권) 상리사회리사장이 세계평화통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지지하여 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제일본조선상공권

남조선의 민기회 향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현이 10일 《대화와 협력만이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겨레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글은 북이 새해공동사설과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조선반도평화를 실현할것을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글은 당국이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나아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